**자기소개**

안녕하세요.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, 민가워입니다. 제 나이는 27살입니다. 제 고향은 프레이벵 주입니다. 제 가족은 아버지, 어머니, 남동생 그리고 저 4명이 있습니다. 우리 부모님께서는 고향에 거주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남동생은 공부하기 위해서 프놈펜에서 살고 있습니다. 남동생은 저 같은 분야를 공부하지만 학교가 다릅니다. 저는 SETEC 대학에서 경영정보학을 전공했습니다. 대학생 3학년 있었을 때 HRD의 장학금 덕분에 6개월 동안 웹, 앱 개발을 공부했습니다. 졸업한 후에 2020년 1월부터 캄보디아 KOSIGN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II로 일하고 있습니다. HR인사관리, 오픈보드, 카드보고서 등 아웃소싱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. 그리고 사내 프로젝트에서는 또한 WeBill365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로컬 팀을 지원했습니다. 모든 프로젝트를 통해 자기의 기술을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선배들을 만났습니다. 저는 혼자 일을 하는데 익숙하지만 팀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.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좋아합니다. 캄보디아 KOSIGN의 직장 생활에서 가장 자랑하는 것은 우수사 원상 3번을 받은 것입니다.

저는 2024년 1월 한국에 비플페이 콘텐츠 팀에 웹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.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어를 조금만 할 수 없어서 동료와 소통을 안 됩니다. 그뿐만 아니라 문화 차이와 음식 때문에 조금 힘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동료가 진천해서 제가 모른 것을 알려줘서 한국 생활이 쉽게 살릴 수 있습니다.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이 캄보디아의 프로젝트가 비슷해서 어려운 점 없다고 생각합니다.

제가 한국에서 친구랑 여러가지 여행지에 갔습니다. 제주도, 경주, 서울 등 갔습니다. 가장 좋아하는 간 것은 제주에 있는 전통 마을 입니다. 제가 간 한국 전통 마을 중에서 집이 작습니다. 두번째 좋아하는 여행지는 경주에 있는 놀이공원 입니다. 그날에 사람이 많이 않아서 빨리 타고 싶은 놀이 구를 탈 수 있 때문입니다.

저는 캄보디아에서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지만 한국에 와서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, 된장찌개, 불고기, 떡볶이 등 입니다. 특히 김치찌개가 맵지 않아서 입에 맞습니다. 그리고 김치찌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. 올해 12월에 고향에 돌아갈 때 부모님께 만들려고 합니다. 부모님께서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.

한국에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보통 집 근처에 있는 산에 등산하러 갑니다. 아니면 기타를 칩니다. 재미 있는 새로운 나올 영화 있으면 친구랑 봅니다. 지난 달에 친구하고 선생님이랑 소브멘을 봤습니다.

제 취미는 코딩을 하고, 영화를, 애니메이션을 보고, 노래를 듣고, 기타를 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동물도 좋아하지만 귀여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합니다.

이상입니다, 감사합니다.